



제144회 발명교실

3월9일 성공사례 등 발표

본회가 주최한 제 144회 발명교실이 지난 3월 9일 발명장려관 연구실에서 개최되었다. 매일 둘째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최 되는 발명교실은 이번에도 1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발명교실에서는 (주)I.B.G 개발실장 박병기 씨의 성공사례 발표와 김영하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제도 해설 그리고 새생각회 강신묵 회장의 발명의 발상기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발명가의 성공사례를 간추려 소개한다. <이두성 記>

절첩식 플라스틱 상자 발명가

(주) I. B. G 개발실장 박병기

그의 관찰은 단순했지만, 판단은 정확했다. 제주도에서 굴을 생산하여 전국 각지로 출하할 때 나무상자를 사용하는데, 굴이 팔리고 남은 빈 상자들은 수거상들이 수집하였다. 수집된 빈 상자들은 다시 부분별로

어려서 부터 발명으로 세계를 제패해 보겠다는 야무진 꿈을 키워 온 발명가.

하는 께쪽의 이용 상태를 보니 너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발명은 인생의 목적이자 전부였으며, 자신을 지탱해 준 유일한 친구였다.

무엇이든 손만 닿으면 척척 물건이 만들어지는 요술손. 그건 발명가만이 지닌 기술이다.

언젠가 우리에게 양측 개방 가능한 도어(문)를 만들어 장안에 화제가 되었던 그가 이번에 절첩이 가능한 플라스틱 상자(일명: 폴디상자)를 만들어 또 한번 장안을 흔들어 놓고 있다.

'멀리 제주도에서 굴을 운반





해체된 다음 철사로 묶여져 제 주도로 이송되면, 굴 산지에서는 다시 나무상자로 조립하여 굴을 담아 출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발명가 박씨의 눈에는 너무도 힘들고 불편해 보였던 것이다.

‘일반 물류용 상자나 운송에 이용되는 포장용 상자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재생이 가능한 데도 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이러다 보니 많은 쓰레기가 발생되고 환경도 막대하게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또한 물류 비용의 과다 지출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형편이 어려워 목욕탕 조업원, 구두닦이며 과일·야채 행사 등 거의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산 경험이었다. 이러한 그에게 나무상자는 발명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된 것이다.

그가 발명한 상자는 일부분이 파손되더라도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 피해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원-터치식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어 상자의 부피가 기존의 5분의 1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점은 우선, 운송비가 절감되고 보관비에서 상당히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발명가 박씨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국내 굴지의 기업인 S물산에서 그의 뛰어난 제품성을 인정하여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 계약을 맺게 된 것이다.

‘어려서 부터 발명으로 세계를 제패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야무진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세계제패의 꿈은 수십개국의 특허 출원으로 이어졌다.

’94년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시회에서 WIPO(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사무총장상도 받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상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다.

‘단지 저는 제가 만든 발명품이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을 때 발명가로써의 보람을 느낍니다.’ 하며 그의 겸손을 표현하였다.

어느 독지가의 도움으로 그리 크지 않은 사무실을 무료로 임대받아 (주) I. B. G(Idea Bank Group)라는 상호를 걸고 개발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발명꺼리가 있다고 말한다.

‘저에게 있어서 발명은 인생의 목적이자 전부였으며, 저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미래의 에디슨 자리는 한국의 발명가가 차지해야 된다고 힘주어 말하는 그의 눈은 이미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발특 9603**